

인과의 조종가능성 이론과 반사실적 분석*†

김 동 현†

우드워드는 인과에 대한 조종가능성 이론은 이른바 낮은 선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에 비해 더 우월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조종가능성 이론은 반사실적 분석과는 달리 인과 자체의 본성을 규명하려는 이론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므로 두 이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론이며 따라서 두 이론을 경쟁관계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조종가능성 이론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즉 재현가능성의 요구와 인과적 지식의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조종가능성 이론이 지닌 이와 같은 실용적 성격은 인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반사실적 분석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낮은 선점의 문제에 대한 조종주의적 해결에 대한 평가도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주요어】 우드워드, 루이스, 조종가능성 이론, 반사실적 분석, 낮은 선점

1.

인과와 반사실적 조건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인과의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들 중의 하나인 제임스 우드워드의 조종가능성 이론(Manipulation theory)은 원인을 결과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로서 간주한다. 그가 말하는 조종의 전형적인 과정은, 인과관계가

* 접수완료: 2008.04.04/ 심사 및 게재확정: 2008.05.20/ 수정완성본 접수: 2008.06.10

† 고려대학교 교양철학실

있다고 추정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인과관계가 개입하여 원인 요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잉여적 요소들’(redundancy ranges)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시킨 다음에, 그에 따라 추정적 결과 요소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한 상황’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강한 의미에서의 실재론적 개념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즉 우리는 원래의 인과적 연쇄를 단절 혹은 연결시키고 뒤이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셈이다. 이러한 조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 조종가능성 이론의 골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종 과정 안에는, 만약 어떤 개입(intervention)¹⁾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반사실적 조건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비록 현실에서는 추정적 원인과 추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특정한 값들을 산출하고 있지만, 만약 그 추정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값을 개입을 통해 선별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러면 추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진술이 바로 여기서 포함된 반사실적 조건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사실적 조건문과 인과 사이에는 일견 순환성이 눈에 띈다. 만약 A가 B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적 논의 바깥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많은 경우 인과는 반사실적 의존성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역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는 인과의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속에는 A가 B의 원인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1) 개입(intervention)의 개념은 조종 이론에서 핵심적이다. 그것은 “올바른 종류의 외과적(surgical) 특징을 가지는 변항의 값에 대한 조종 혹은 변화”로 정의된다. (Woodward 2001, section 5.) ‘외과적’이라는 용어가 가진 은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조종가능성 이론은 다른 모든 변항의 값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한 변항의 값만을 선별적으로 조종하는 절차를 암시한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사실적 조건문을 이용해서 인과의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시도인 데이비드 루이스의 인과 이론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이용하되 인과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부여하려 시도한다. 즉 두 이론은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연결고리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대안적 접근이다. 이 때문에 우드워드도 자신의 조종가능성 이론이 루이스의 이론과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루이스적 반사실적 분석이 가진 여러 가지 난점들을 나열함으로써 자신의 조종가능성 이론을 더 선호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 보인다.²⁾ 반사실적 조건문을 활용하여 인과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매우 유사하지만, 그러나 루이스의 접근은 많은 난제들에 직면하는 반면 조종가능성 이론은 그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후자의 제안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 우드워드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드워드의 논증은 우리에게 조종가능성 이론적 전략을 선택하고 반사실적 분석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사실적 분석보다 그것의 ‘맞수’인 조종가능성 이론을 선택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답은, 두 이론을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며 따라서 두 이론 사이의 득실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인과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구분되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2장에서는 루이스에 대한 우드워드의 비판을 주로 늦은 선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 3장에서는 조종가능성 이론이 가진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것이 루이스의 분석과는 구별되는 철학적 동기를 지닌 이론임을 상술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조종가능성 이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늦은 선점의 문제와 같은 특정한

2) 주로 Woodward (2003), 3.6.

인과 관련 쟁점에 대한 접근에서 조종가능성 이론이 다른 이론과 어떻게 구별되는 시각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³⁾

2.

우드워드와 루이스 사이의 논쟁의 중심은 환원주의에 있다. 루이스의 전략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를 통해 부여하는데, 여기서 가능세계들은 현실 세계와 본질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동등한 실재로서 인정되며 가능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차이는 단지 해당 반사실적 조건문이 주장되는 관점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존재자로서의 가능세계들 사이에는 유사성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가 주어진다. 가령 “만약 c 가 일어났었다라면, 그러면 e 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반사실적 조건문이 공허하지 않게 참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c 와 e 가 모두 일어나는 가능세계가 c 는 일어나지만 e 는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할 때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방식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미를 귀속시키는 전 과정에서 인과의 개념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사건들의 배열(루이스의 수사에 의하면 사건들의 ‘모자이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⁴⁾

3) 혹자는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반사실적 분석은 루이스의 1973년 버전으로서 그 이후 많은 보충(특히 Lewis 1973a의 후기와 Lewis 2000)이 이루어지면서 원래의 제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사실적 분석의 구 버전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드워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드워드가 행하는 그러한 비교가 올바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으며, 그럼으로써 두 이론 모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데 있다. 만약 루이스의 1973년 이론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이라면 그에 대한 해명의 책임은 우드워드 쪽에 있다.

인과의 조종가능성 이론과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 둘 다 인과를 분석 혹은 설명하는데 있어 반사실적 조건문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루이스의 반사실적 분석에서의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순서 관계”는 조종가능성 이론에서의 개입 행위의 개념과 그 역할에 있어서 가깝게 닮아 있지만,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루이스는 가능세계에 대한 실재론적인 긍정 및 가능세계들이 가진 물리적이고 국소적인 성질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에 의해서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의 반사실적 조건문 의미 할당에서는 인과 개념이 미리 전제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반사실적 의존성을 통한 인과의 분석은 순환성을 피하게 된다. 그에 반해서 우드워드는 거꾸로 인과의 개념을 원초적(primitive)으로 상정한다. 이것은 인과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환원 혹은 제거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인과 개념 자체가 환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실재론적 가능세계의 개념도 굳이 끌어들이 필요 없다.⁶⁾

조종가능성 이론이 반사실적 분석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늦은 선점(late preemption)의 문제이다. 그의 책에서 우드워드는 자신의 조종가능성 이론은 늦은 선점의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반사실적 분석은 난관에 봉착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드워드의 진단에 의하면 반사실적 분석에서 늦은 선점의 문제가 우리의 상식적 직관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난제로 떠오르는 근본원인은, 그 이론이 인과의 개념을 다른 비 인과적 개념을 통해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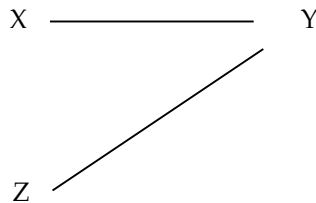
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Lewis (1973b) 참조.

5) Woodward (2001), section 10.

6) 두 이론 사이의 또 다른 차이로서, 조종은 이성적 주체가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생시키는 의도적 사건인 반면, 가능세계 안의 순수하게 물리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사건들의 배열에서는 그러한 심리적 요소가 배제되는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언급이다. 조종의 개념은 어떠한 이성적 행위주체 혹은 그것의 심적 의도의 존재도 요구하지 않는다. 알파 켄타우리의 화산 폭발과 같이 조종이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조종가능성 이론은 그러한 경우들을 배제하지 않으며, 단지 원칙적인 가능성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Ibid, section 11.)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우드워드의 조종가능성 이론은 그러한 제거적 환원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선점의 문제와 같은 난제를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늦은 선점의 문제를 조종가능성 노선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 안에는 분명 인과의 개념이 다시 개입되므로 순환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설명이 인과의 개념을 통해 인과의 개념을 환원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성 순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⁷⁾

늦은 선점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지와 빌리 사례”를 살펴보자.⁸⁾



수지가 병을 향해 먼저 돌을 던졌고(X), 빌리는 그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병을 향해 돌을 던졌다(Z). 그리고 수지의 돌이 먼저 병에 도달하여 병을 깨트렸고 빌리의 돌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는 깨어진 병의 파편들만이 날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수지의 돌 던짐은 병의 깨짐(Y)의 원인이라는 진술은, “만약 수지가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병은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에, 반사실적 분석에 의해서 긍정되지 못한다. 우드워드의 시각에 의하면, 이러한 반사실적 의존관계가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선점된) Y의 원인인 Z

7) Woodward (2003), pp.140~141.

8) 이 사례를 둘러싼 우드워드의 서술은 *ibid*, p.136.을 전후하여 가져온 것이다. 그의 서술에 나타난 사례는, X가 Z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Y를 이중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Z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루이스가 서술한 원래의 ‘수지와 빌리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원래의 버전이 훨씬 간단한데다가 우드워드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특별한 부족함도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원래의 버전을 따르도록 한다. 수지와 빌리 경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ewis (2000) 참조.

(즉, 빌리의 던짐) 때문이다.” X가 Y의 원인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분명하며 이러한 직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식은 만약 Z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를 추측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우 Z와 Y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기술하는 진술 즉 Z의 값을 0으로 고정시키는 개입 행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X가 Y의 원인이라는 진술을 올바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인과적 진술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인과의 개념을 제거하고 그것을 다른 비 인과적 장치들로 대체하려 한다면 위와 같은 난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환원은 제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며, 어떤 개념을 환원하는 것이 반드시 그 개념의 제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과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만큼은 인과에 대한 환원적 접근은, 비록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인과 개념의 제거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만약 우리가 인과의 개념을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성공적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다시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로 환원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과의 개념을 마침내 제거한 것이라고 말할 좋은 위치에 놓이는 셈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한 우드워드는 루이스가 인과의 개념을 “더 보편적인 개념” 즉 반사실적 의존을 통해 “정의”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루이스는 인과를 “제거”하려 하고 있거나 혹은 반사실적 분석이 인과를 “대신”(surrogate for)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의 병 깨짐의 예에서 조종가능성 이론가들은 또 다른 선점된 원인인 빌리의 던짐에 대해 언급하는데 있어서 한결 자유롭다. 왜냐하면 수지와 빌리 그리고 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과 개념의 남김 없는 제거가 아니라 유관한 요소들의 값들 사이에서 얻어지는 공변(co-variations)이기 때문이다. 병의 깨짐 경우를 기술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여부는 빌리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인과적 주장에 의존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인과적 주장은 다른 비 인과적 장치들에 의해서 제거될 것으로 애초에 기대되지 않는다. 이상이 늦은 선점의 문제에 대한 우드워드의 진단이다.9)

그런데 우드워드의 공격에 맞서 루이스를 방어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¹⁰⁾ “우드워드의 비판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가 루이스와 동일한 전제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루이스는 법칙적 필연성에 대해서 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드워드는 법칙적 필연성을 전제하는 비 흄적 전제를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칙적 필연성의 개념이 없이는 개입과 단순한 상례성의 일탈 사이의 차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의 개념도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상의 반론자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두 가능

-
- 9) Ibid, pp.136~137. 우리는 루이스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제거주의’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루이스 본인은 “정의(definition)”보다는 “분석(analysis)”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더 선호하지만 용어법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루이스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흄 주의의 한 버전이며 흄 주의 그 자체는 노골적인 제거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흄의 이름을 법칙적 필연성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잘못 언급하기 쉽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흄 본인의 견해는 그와는 다르다. 흄은 오히려 법칙적 필연성의 존재를 일단은 긍정하는 듯 보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법칙적 필연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정당화의 방법을 열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가 주로 옹호하는 생각은 법칙적 필연성이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획득되기 전에 *미리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Hume, Chapter IV and V 참조.) 비록 그러한 정당화가 귀납적으로 좌절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결론은 법칙적 필연성에 대한 반실재론으로부터는 조심스럽게 구분되어야 한다. 법칙적 필연성이 미리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법칙적 필연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 환원주의를 둘러싼 용어법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드워드가 환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따르면, 루이스의 이론은 실질적으로 제거적 환원주의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드워드의 이러한 독해를 거부해야 할 어떠한 뚜렷한 이유도 없다.
- 10) 여기서 이 가상의 반론자의 반박을 자세히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본 논문의 주제가 우드워드의 공격에 대해 루이스는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위와 같은 방식의 반박이 무력함을 보임으로써 이와는 다른 대안적 답변을 모색해야 할 동기가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두 이론 사이의 차이가 흄 주의를 둘러싼 고전적인 인과 논쟁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일견 그럴듯한 생각 역시 오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두 이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특히 양측이 법칙적 필연성과 상례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다.

세계 w_1 과 w_2 를 비교해 보자.

w_1	a (1)	\Rightarrow	b (0)	\Rightarrow	c (0)	\Rightarrow	d (1)
w_2	a (1)		b (0)		c (0)		d (1)
	t_1		t_2		t_3		t_4

a 에서부터 d 까지는 개별 사건들을 나타내며, 숫자 0과 1은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표시한다. w_1 의 화살표는 그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a 의 발생은 b 의 발생하지 않음을 야기하고 그것이 다시 c 의 발생하지 않음을 야기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그에 반해서 w_2 에서는 개별 사건들의 발생과 발생하지 않음이 w_1 과 완벽하게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적 관계도 없다. 즉, 그 사건들은 모두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며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사건을 야기하거나 그 것에 의해서 야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t 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w_1 과 w_2 사이의 동시성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두 세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별 사건들 사이의 어떠한 종류의 필연적 결합도 미리 가정하지 않는, 루이스를 포함한 흄 주의자들은 w_1 과 w_2 를 전 이론적(pre theoretically)으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위의 화살표들을 미리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루이스를 포함한 흄 주의자들은 w_1 과 w_2 가 같은 자연의 법칙을 공유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법칙은 궁극적으로는 사건들의 국소적 배열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인과의 개념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종주의자들은 두 가능세계는 서로 다르다고 대답해야 한다; w_1 에서는 사건들 사이에 인과적 결합이 있는 반면, w_2 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진술, 즉 인과적 결합의 유무에 따른 w_1 과 w_2 사이의 차이를 언급하는 진술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조종주의자들은 법칙적 필연성의 유무 여부에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a ~ d 사이의 인과적 관계들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상의 반론자의 의견을 단순히 정리하면, 법칙적 필연성의 개념이 없이는

개입도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가령 두 세계 모두에서 빌리의 던짐이 일어나지 않았고 수지 혼자 던졌으며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병의 깨짐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w_1 에서는 어떤 개입(혹은 루이스의 어법을 따르자면 일종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빌리의 던짐을 차폐하였고 그에 의해서 수지의 돌에 의한 병의 깨짐이 ‘산출’되었다. 반면 w_2 에서는 그 사건들이 단지 시간적으로 $X(1) \quad Z(0) \quad Y(1)$ 의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종주의자에게 w_2 에서 $X(1)$ 이 $Y(1)$ 의 원인이나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조종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w_2 를 기술하는 적절한 인과적 진술은, 만약 어떤 개입에 의해서 Z 가 0으로 고정되고 그리고 동시에 만약 또 다른 개입에 의해서 X 의 값이 1로 변화되었다더라면 그러면 Y 는 1의 값을 가졌을 것이라는 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w_2 에서 간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Z(0)$ 과 $X(1)$ 은 Y 와는 무관하며 어떠한 ‘신비로운 결합’도 가지지 않는 그저 국소적 우연적 사건들일 수도 있으므로, 그들 사이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법칙적 필연성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병의 깨짐이 빌리의 던짐을 고정시키는 조종에 의해서 ‘산출’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종가능성 이론가들은 인과를 다른 것으로 환원하지 않기 때문에 w_1 과 w_2 가 서로 다르다고 구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법칙적 필연성의 개념을 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w_1 의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w_2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개입을 포함하는 적절한 반사실적 진술이 오직 w_1 에서만 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입 개념은 법칙적 필연성을 필요로 한다.

두 이론이 공통의 가정 즉 흠 주의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루이스에 대한 우드워드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런 식의 대답은 루이스를 방어하기에 충분한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종가능성 이론과 같이 일단 처음부터 인과의 개념을 비-환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논증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조종가능성 이론이 인과 개념에 기초하여 w_1 과 w_2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법칙적 필연성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¹¹⁾ 만약 조종가능성 이론이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 법칙적 필연성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결국 인과 개념을 법칙에 호소하여 환원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종가능성 이론은 인과에 대한 어떠한 환원도 거부하며, 그 환원 속에는 “포섭법칙(covering law)으로의 환원”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조종가능성 이론이 법칙적 필연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반사실적 분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¹²⁾

-
- 11) 법칙적 필연성을 전제하는 것은 인과의 개념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 흄적 논제는 단지 인과에 대한 논제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법칙에 대한 논제임을 주목하라. 그것은 일차적으로 법칙적 필연성의 본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인과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흄 주의의 핵심은 비록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명료하며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한 가지 표준적 이해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연결하는 어떠한 초월적인 법칙적 필연성도 미리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제이다. 혹은 프레이와 사이벨트의 정의를 따르면, 흄 주의의 핵심은 “자연의 법칙의 형이상학적 필연성의 원초적 개념에 대한 거부”라고도 파악될 수 있다. (Prey&Siebelt, 2001, p.4.) 비슷한 정리가 이어만과 로버트의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흄 주의의 핵심을 개별 사건들을 연결하는 “비밀스러운 결합은 없다는” 논제로 이해한다. (Earman&Roberts, 2005) 자연의 법칙에 대한 흄적 수반 논제에 대한 언급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흄적 수반은 “무엇이 자연의 법칙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흄적 기반(Humean base)들에 수반한다.”로 정리되는데, 여기서 흄적 수반이란 “신뢰할 만 하고 시공간적으로 유한한 관찰 혹은 측정 절차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세계에서의 비-법칙적 사실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Ward, 2001, p.193.) 이상에서 보듯, 흄 주의의 핵심은 ‘항상적 연결’로서의 상례성에 그 강조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조종가능성 이론은 비 흄적인가? 양상성에 대한 흄 자신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는 문제는, 비록 다루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이지만, 짧은 분량으로 정리할 수 없는 어려운 임무이다. 흄의 서술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현대적인 논쟁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각주 11에서 언급한 정의를 흄 주의의 적절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다면, 우리는 흄 주의의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는 어떤 세계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이고 물리적인 사건들로 구성된 모자이크들의 조각을 연결한다고 미리 가정되는 어떠한 원초적 결합도 없다는 논제로 정리할 수 있다. 1983년도 논문에서 루이스는 이를 법칙적 필연성 그리고 더 높은 차수의 속성들은 완전히 자연적인 속성(perfectly natural properties)들의 배열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제로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제는 물리주의와 동일하지는 않다. 물리주의의 참 거짓 여부에 관

3.

그렇다면 왜 루이스는 인과를 애써 다른 개념으로 환원 혹은 제거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우드워드처럼 인과의 개념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인과에 대한 환원적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주된 동기는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악명이 높은 인과라는 개념을 경험론과 양립시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경험론적 이상이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핵심이라면 조종가능성 이론도 반사실적 분석을 포함한 다른 경쟁자들에 못지않게 충분히 그 이상에 충실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조종가능성 이론은 경험 과학에서의 연구 방식인 통제 실험과 정확히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종적 과정의 주요 골격 자체가 이러한 방법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조종가능성 이론이 일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속성들 사이의 결합 혹은 그들 사이의 필연화 관계가 아니라 유관한 변형들이 가지는 값의 변화들이다. 속성 사이의 고차 관계에 비해 변형 값들의 공변은 원칙적으로 실험과 관찰에 열려있거나, 혹은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하면,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셋째로, 조종가능성 이론은 법칙에 대한 전통적 경험론인 상례성주의(regularitive) 법칙관을 공유하고 있다.¹³⁾ 자연의 법칙이 상례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연의 법칙은 개별 사건들의 배열로부터 추출된 추상화

계없이 흠적 수반 논제는 여전히 주장가능하다. (Lewis 1986, p. x. 참조) 1983년 이후 루이스는 암스트롱의 보편자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그는 이를 “자연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더 선호한다. 자연적 속성 혹은 보편자의 도입에 따라 모든 속성들이 평등한 (1차) 속성인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후기의 루이스 주의를 정통적인 흠 주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자의 도입 그 자체는 물리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흠 주의에 대한 부정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흠 주의의 긍정에 대한 물음은 자연적 속성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Armstrong, Chapter 5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면, 조종가능성 이론이 비 흠적인 견해로 간주될 이유는 없다. 흠 주의의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과 개념의 실용적 사용에 대한 금지를 찾아볼 수 없다.

13) Woodward (2003), 3.1.7.

(abstraction)라는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칙의 일탈은 상례성의 일탈에 해당하거나 혹은 수반한다. 상례성주의적 접근은 사건들을 초기적으로 우연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칙적 필연성은 그들로부터 추출된 결과로서 얻어진다.¹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핵심적 질문에 직면한다. 만약 반사실적 분석과 조종가능성 이론이 모두 경험론에 경도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한 이론은 인과 개념의 제거를 향하는 반면 다른 한 이론은 그것의 부정을 원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절 끝부분에서 언급한 질문, 즉 우드워드의 논증이 반사실적 분석보다 조종가능성 이론을 더 선호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결국 같다고 생각한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론이라는 것이다. 조종가능성 이론은 인과 개념의 경험론적 방식에서의 효용화(utilization)를 정립하는 것을 의도하는 반면, 루이스의 제안은 인과 그 자체가 가진 실체적 성질들을 경험론적 방식으로 분석하려 노력한다. 실용적 공학과 이론적 과학 사이의 유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조종가능성 이론은 반사실적 분석의 목적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목적을 드러내 보이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을 가진다.

첫 번째 측면은 재현가능성(reproducibility)의 요구이다. 흄의 저작에 대한 많은 해설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흄 주의는 전형적으로 타입 인과를 반대한다.¹⁵⁾ 물론 조종가능성 이론도 토큰 인과를 기

14) 우드워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법칙적 필연성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인과적 주장을 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기저에 놓인 법칙들이 “필연적”이라고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ibid*, p.173.) 이 맥락에서 그가 공격하는 주된 목표는 인과를 포섭법칙으로 ‘환원’하려는 아이디어이며 그 이유는 나의 2장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 (특히 Woodward and Hitchcock 2003), 그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어떠한 정도도 보류하며 단지 그 단어를 ‘전통적인 철학적 의미로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어느 쪽이건, 그의 법칙에 대한 개념이 정직하게 전통적인 한, 비록 “이 상례성이 저 상례성보다 더 법칙적(lawlike)이다”라는 식의 독창적인 주장을 하는 루이스 식의 상례성주의(Lewis 1973b, p.75.)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의 법칙관은 상례성주의 견해와 양립 가능하다.

본적 인과관계로 간주하지만 타입 인과로의 변환도 가능하다고 우드워드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타입’이라는 용어로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과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용어 ‘타입’은 횡적(horizontal)인 의미로서, 같은 속성의 다른 예화들에 대한 양화를 암시한다. 가령 그것은 이 성냥의 불붙음과 저 성냥의 불붙음과 같이 같은 종류의 속성의 예화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드워드가 용어 ‘타입’을 통해 의미하는 바는 종적(vertical)으로, 하나의 변항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변화 범위이다. 그러나 ‘타입’에 대한 우드워드 자신의 용어법이 어떻게 상관없이, 그는 결국에는 횡적인 의미에서의 타입 인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조종가능성 이론이 요구하는 반복가능성 조건 때문이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논의의 범위를 반복이 가능한 인과적 관계의 경우들에 한정시킨다.

어떤 가능한 개입이 X에 실행되었을 때 Y에 일어날 것들은, 만약 X를 조종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Y는 어떤 반복 가능한 혹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값이 변하는 그러한 어떤 X에 대한 개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⁵⁾

조종주의에 의하면 어떤 약품 M이 질병 D의 회복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회복이 M과 D가 관련된 경우들에서 반복적으로 재현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화(generalization)와 예화(instantiation) 사이의 고전적인 양방향 변환을 솔직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솔직함은 조종가능성 이론가들에게 전혀 단점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목적이 인과의 신비스러운 속성을 발견하는 것인 한 당신은 타입 인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흡이 논증했듯이

15) 예를 들면, “왜 이 경험은 미래 시간으로 그리고 단지 외형에서 유사할 뿐인 다른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가?... 내가 그러한 한 대상이 언제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과, 외형에서 유사한 다른 대상이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Hume, pp.34-35.)

16) Woodward (2003), pp.70~71.

타입 인과는 우리 경험의 경계를 뛰어넘는 추론의 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유관한 변함에 대한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변화(alterations)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조종가능성 이론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접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이스 철학 전반을 표방하는 흄적 수반 프로그램(Humean supervenience programme)은 그 이름에 걸맞게¹⁷⁾ 일차적으로는 타입 인과가 아닌 토큰 인과만을 식별한다. 그 이론의 목적은 인과의 본성을 재현가능성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 비 인과적인 상례성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종가능성 이론이 가지는 두 번째 실용적 측면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로 나아가는 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드워드가 루이스의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판정 기준에 대해 지적하는 첫 번째 비판은 그 모호성이다. 단순히 모호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어려움은, 만약 루이스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몇몇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리값은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데 있다.¹⁸⁾ 김이 셀 수도 있지만 루이스 자신도 그의 유사성 기준이 가진 모

17) 엄밀히 말하면 “흄적” 수반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루이스의 프로젝트는 흄의 원래의 견해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포브스(Forbes, 1985)의 분류에 의하면 흄의 견해는 양성성에 대한 비인식주의(non cognitivism), 즉 양상적 개념을 포함하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견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양상성은 문장에 진리값을 할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c는 e를 인과적으로 필연화한다”와 같은 문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또는 거짓인 주장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심적 습관을 표현할 뿐이다. 비인식주의의 반대말은 객관주의(objectivism)로서, 실재(그것이 무엇이든)가 양상적 진술을 참 또는 거짓으로 만든다는 견해이다. 이 분류를 따른다면 말할 것도 없이 루이스의 입장은 객관주의에 해당한다. 루이스는 양상 진술이 진리값을 가진다고 볼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값을 가지는 것은 가능세계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Lewis 1973, pp.84-85.) 하지만 루이스의 프로그램 제목에 들어있는 “흄적”이라는 말은 그다지 오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포브스의 분류는 양상 진술의 언어적 속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인식주의와 객관주의는 기본적으로 필연성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상 진술의 의미에 대한 입장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칙적 필연성 그 자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라면 루이스의 제안은 여전히 “흄적”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다.

호성의 어려움을 인정한다.¹⁹⁾ 그가 모호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논문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호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두 사람 모두 이에 동의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기준에 대해 보다 중요한 쟁점은 우드워드가 그 기준들을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그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임을 우리가 알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폴 호위츠의 유명한 비판²⁰⁾이 이 대목에서 인용된다. 호위츠는 어떤 반사실적 조건문을 이해하기 위해 혹은 그것에 의미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따져 묻고 있다. 가능세계 의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 관계는 인식주체의 인식적 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능세계들 사이의 유사성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것들이 가진 물리적 성질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이러한 오해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공감대의 결여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드워드의 루이스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인과에 대한 이론을 실용적인 것과 비실용적인 것으로 분류한 다음, 실용적인 이론의 하나로서의 조종가능성 이론의 주된 목적은 인과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과에 대한 지식에 있다고 말한다.²¹⁾ 그의 저서(Making Things Happen)에 첨부된 부제인 “인과적 설명을 위한 한 이론(a theory of causal explanation)”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구상은 인과 그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인과적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화에 해당한다. 물론

18) Woodward (2003), pp.138~139.

19) Lewis (1973b), pp.91~94.

20) Horwich (1987), pp.213-215.

21) Woodward (2003), 2.1. 나는 우드워드의 다른 몇몇 언급들, 가령 루이스의 유사성 기준이 반사실적 조건문을 참으로 “만든다”는 언급(ibid, p.137.) 등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과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점의 중심은 인과적 지식에 있음은 분명하다.

나의 논점은, 오히려, 인과에 대한 어떠한 수용 가능한 설명도 왜 인과적 지식이 때때로 실용적으로 유용하며 그것의 실용적 효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만약 당신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X와 Y 사이의 인과 관계 그 자체라면, 그러면 X의 값을 x_1 , x_2 , 등으로 조종하고 그에 따라서 Y의 값을 y_1 , y_2 , 등으로 얻는 것이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외재적으로 정당화하는 유일한 증거일 뿐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X의 논항과 Y의 값들 사이의 공변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 원인인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종주의적 조사는 더할 나위 없는 도구이다.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우리의 인상으로부터 인과 그 자체로 도약하는 위험적 추론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 놓인 철학적 통찰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 조종주의적 방법론을 폐기하는 것은 실용적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유관한 요소들 사이의 공변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드워드에게 여전히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것이 조종가능성 이론이 인과적 설명의 범위를 우리의 인식적 범위 안으로만 제한하는 동기이다.

인과 관계는 세계의 성질이다. 그들은 자연에서 “바깥 거기에(out there)” 존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설명은 인간 혹은 상상하기로는 다른 어떤 동물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로서 정보, 즉 인과에 대한 정보의 발견과 축적에 관련이 있다. 나는 이것이... 설명에 대한 추가적인 인식적

22) Ibid, p.30.

제한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 제한은, 거칠게 말하면, 설명적 정보는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각되고, 연구되고, 혹은 평가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한 마디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²³⁾

그러므로 수지의 던짐이 병의 깨짐의 원인이라는 납득할 만한 인과적 설명이 주어진 이상 더 이상 설명해야 할 것은 남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환원주의자들은 만족스러운 인과적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인과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원주의자들이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바로 “바깥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는, 수지와 빌리 중 누구의 던짐이 병의 깨짐의 원인이었나에 대한 답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가 아닌 수지의 던짐이 병의 깨짐의 원인이라는 관계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쟁점은 빌리-수지 사례를 둘러싼 루이스와 우드워드 사이의 시각차이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우드워드의 해결은 진정으로 늦은 선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인과의 개념을 제거하지 않고 자유롭게 ‘잠재적 원인인 빌리의 던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적절한 통제 실험을 설정한다면 우리는 수지의 던짐이 병의 깨짐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만족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수지가 던지지 않았더라면 빌리의 던짐에 의해서 병이 깨졌을 것이라는 인과적 지식 역시 정당하게 획득된다. 이로서 조종가능성 이론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늦은 선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결과는 루이스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 비록 빌리의 던짐이 차단당하고 수지의 던짐만 이루어지는 실험에서 병이 깨진다는 경험적 증거가 얻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지의 던짐과 병의 깨짐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가 가진 본성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우드워드가 제안하는 조종가능성 이론의 우월성은

23) Ibid, p.23.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이론이 서로 대안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두 이론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인과 개념의 실용적 효용화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같은 문제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반사실적 분석은 늦은 선점의 문제를 조종가능성 이론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가장 우아한 절충안은 루이스의 마지막 제안인 “영향으로서의 인과”(Causation as Influence)이다. 루이스는 말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종가능성 이론과 놀랄 만큼 흡사한 면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000년도 논문에서 그는 늦은 선점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원인의 실체적 범위(substantial range of causes)’라든가 ‘변역(alteration)’ 등과 같은 새로 고안된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전환을 그가 반사실적 분석의 원래의 버전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c는 e의 원인이다”는 더 이상 “ $\sim c \square \rightarrow \sim e$ ”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퇴보가 아닌 진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늦은 선점의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더해, 그것은 자연적 속성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예화를 미리 고정한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외재적 존재자도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흠적 미덕이라는 장점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은 선점의 문제에 대해 우드워드가 내놓았어야 하는 더 적절한 대답은 루이스의 영향 이론과 비슷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 선택지는 우드워드에게 어떠한 후퇴도 강요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Armstrong, D. M. (1989): *Universals*, Westview
- Earman, J. and Roberts, J. (2005): "Contact with the Nomic: A Challenge for Deniers of Humean Supervenience about Laws of Nature Part I",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LXXI, No.1, pp.1 22.
- Forbes, G. (1985): *Metaphysics of Modality*. Clarendon Press.
- Horwich, P. (1987): "Lewis's Programme" in *Causation*, ed by Sosa, E. & Tooley, M., pp.208 216.
- Hume, D. (1955):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77), The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 Lewis, D. (1973a):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pp.556 567.
- (1973b): *Counterfactuals*: Blackwell Publisher
- (1983): "New Works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pp.343 377.
- (1986): *Philosophical Papers II*: Oxford Press
- (2000): "Causation as influence", a special issue of the *Journal of Philosophy*, pp.182 197.
- Preyer, G. & Siebelt, F. (2001): *Reality and Humean Supervenience*: Rowman&Littlefield Publisher
- Ward, B. (2001): "Humeanism without Humean Supervenience: A Projectivist Account of Laws and Possibilities", *Philosophical Studies* 107: pp.191 218.
- Woodward, James, (2001): "Causation and Manipulability"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causation-mani/>
- (2003): *Making Things Happen*: Oxford Press

Woodward, J. and Hitchcock, C. (2003): "Explanatory Generalizations,
Part I: A counterfactual Account", *Nous* 37:1 pp.1~24.